

교회소식

미술인 선교회 가을 전시회



가을의 색으로 온통 물들어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미술인 선교회에서 4번째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전시회를 준비하는 동안 설레임과 기쁨 가득한 시간이었다.

이번 전시회는 추수감사절 주간인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지하 소식당에서 열린다. 한 작품 한 작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농부가 추수하는 마음처럼 저희의 영혼과 손끝에서 추수된 아름다운 그림을 주님과 여러 교우님들께 선보이게 된다. 16일 1부예배후에 작은 다과와 함께 opening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맘껏 느끼시기를 소망한다. 판매액의 반은 선교 기금으로 쓰여진다고 한다.

선교사역본부 미술인 선교팀

중보기도사역팀 전체 모임

중보기도 사역팀에서는 11월 6일(목) 아차산에 있는 아천동 교회에서 가을 모임을 가졌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멋진 단풍을 보며 짧은 기도회로 친목을 다졌다. 11월 13일(목)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위한 기도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 여러 어려운 형편에서 힘든 삶을 사는 성도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도의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자로 세워 주심에 감사하였다..



농어촌 협력교회를 돕기위한 작거리 장터

선교사역본부에서 농어촌 지원교회의

농어민들이 직접 자연 상태에서 전통적인 가공법 또는 유기농법으로 정성스럽게 생산한 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품목을 안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작거리 장터를 아래와 같이 준비 하였습니다.

주목한 물량과 관계없이 충분히 준비하였으므로 많은 교우들의 참여하여 농어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생산자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뜻있는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셔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 1 일사: 2008년 11월 22일 오전 10:00 ~ 오후 3:00
- 2 장소: 정신여중고 운동장(주차편의제공:무료)
- 3 작거리장터 취급 품목과 가격표 (구역예배시 배부한 자료 참조)
- 4 당일 행사장에는 먹거리(14개품목)가 별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참여 한다면 특별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끄시는대로

허윤정



* 추수감사절 쏘니눔 행사 *

복지선교본부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쏘나눔 행사를 갖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현물(쌀), 현금
접 수: 현물 1층 안내 데스크(주일), 사무실, (주중)
현 금: 안내데스크에서 현금봉투 수령
기 간: 11월 9일(주일) ~ 11월 16일(주일)
문 의: 권승환 안수집사 011.217.8336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통 권 제 239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8년 11월 9일

내가 참 좋아하는 가을이!

-어르신 가을나들이를 마치고-



비가 많이 내려 행사에 차질이 있을까 하는 우려와는 달리 70여명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마쳐

지난 10월 31일(금) “어르신나들이” 행사가 청남대에서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려 80여명 참가할 것이라 예상한 행사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70여명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청남대에 도착한 일행은 예전의 대통령의 별장을 구경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도 했다. 가을 국화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으며 “나는



얼굴이 늙어 썩지마” 하면서도 사진기 앞에 서는 어르신들은 “내년에는 봄꽃 필 때도 밖에 나왔으면 좋겠다” 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가을 정취를 즐겼다.

특히, 참석 어르신들은 “주일예배 후 교회에서 보낼 자신들의 공간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고 소회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신형섭 기자

로 템 나 무

우리 어머니



찬 바람이 불면 우리 어머니는 무릎이 시리다고 하신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신다.

아마도 젊은 시절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해 오셨기 때문이리라.

한때는 부지런하고 피를 부리지 않은 어머니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과 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삶의 꾀대는 어머니가 손과 발이 달도록 일하는 것이었고 가혼은 어디선가 어머니의 부지런함이었고 남에 대한 자라는 어머니의 겸손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머니의 부지런함이 야속하다. 다른 어머니는 허리가 땅에 닿도록 굽지도 앉았으며, 무릎이 시리지도 않고 허리가 아프시지도 않다. 아마도 자신의 몸을 아끼는 요령(?)을 일찍 알았기 때문이었으리라. 우리 어머니는 어리석었다.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60대 이후 고통이 동참해 온 우리 어머니의 삶이 불쌍하다.

아침 출근길, 전화 속에서 “건강해~” 하시는 어머니와 지하철 계단에 붓짐을 들고 가는 어머니와 개척교회 목사님이 써 주신 기도문을 열심히 중얼거리는 어머니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하태원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 -2008 교사대학



10월 26일부터 교육부 모든 교사들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찬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 꿀 많은 교우들이 참석을 하여 4주간 동안 오후 3시부

터 5시까지 대강당에서 열린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고 공부하

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각자 맡은 부서에서 다음세대를 이루어가기를 바라며 아이들 모습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차게 커가기를 기대한다. 강의를 통한 다양한 교육 방법의 소개가 있으며 아이들에게 기대 받는 교사가 되기를 바라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기도하는 시간도 가진다. 신형섭 기자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 개원 성황리에 진행되어”

지난 10월 27일(월)은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본부가 개원되었다.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중고등부교사들의 특별찬송에 이어 담임목사님의 설교말씀, 정영택(경주제일교회), 홍정근(강남연동교회) 목사님의 축사와 손인웅(덕수교회)목사님의 축도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세미나는 오후 7시까지 청소년 사역자들과 함께 2009년 청소년 사역을 준비하는 ‘정책세미나’로 전국에서 150여명이 참석했다.

처음에는 ‘2009년 시대적 상황

과 교회교육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담임목사님의 특강과 ‘2009년 시대적 문화흐름과 청소년교육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송철대교수 박양식 목사님의 특강이 이어졌으며 점심식사 후에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는 청소년사역’에 대하여 박상진(장신대)목사님을 강의를 있었다. 이어서 2009년 교회력에 따른 청소년부서 교육계획, 다양한 매체문화를 활용하는 청소년교육내용과 비전트립과 수련회를 준비하는 내용의 강의와, 또한 청소년 학원사역의 내용과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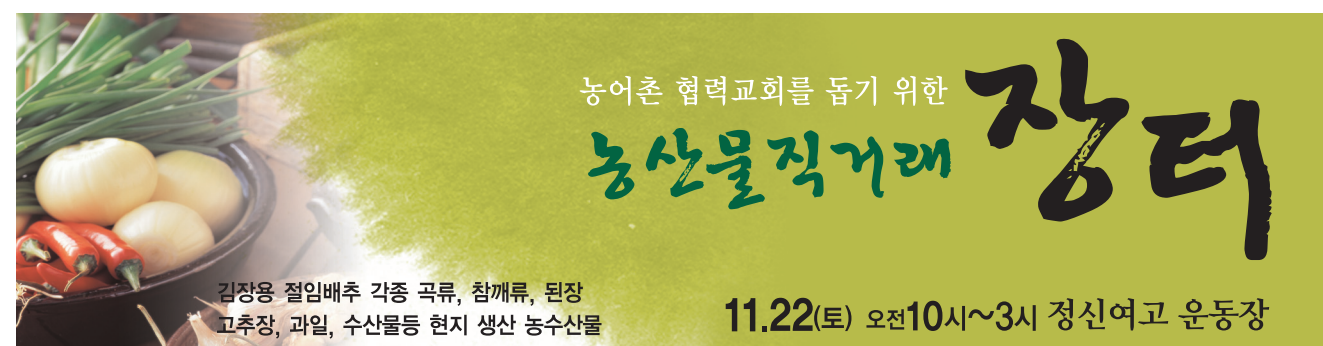
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회의 사역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 세미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큰 파도(포스트 모던시대의 빠른 변화와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파도와 입시 사교육의 파도)앞에 청소년사역에 지친 사역자들이 갈급한 심령들의 허심탄회한 모임의 자리였기 때문에 하루모임이 너무나 짧았고 아쉬웠던 시간들이었다. 무엇



보다 감사했던 일은, 청소년사역원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큰 그림이 그려졌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앞으로 우리교회 많은 분들의 수고가 이어질 이 행사에 관심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기대해 본다.

박혜성목사



농어촌 협력교회를 돕기 위한

농산물직거래 장터

김장용 절임배추 각종 곡류, 참깨류, 된장
고추장, 과일, 수산물등 현지 생산 농수산물

11.22(토) 오전10시~3시 정신여고 운동장

담임목사 주일설교	2면
행복한 구역모임	3면
2008 교사대학	4면
청소년사역원	4면

Know why가 필요한 시대

이번에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진단하는 말 가운데 거듭 반복되는 단어가 탐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탐심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어이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정보의 시대가 갖는 근본 문제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 시대를 넘어 정보의 시대, 지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Know How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지식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영어로 Know Why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know why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부모님들이 비록 공부를 못하셔도 학교갈 때마다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부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부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사라진지 벌써 오래입니다. 착해서 못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탐심이라는 동기가 자리했습니다. 지식을 갖되 개인의 탐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태 가운데서도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쫓기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의 방향을 잡아주고 지식의 목적을 일러주는 지혜자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지혜가 중요한 이유

오늘 시간에는 왜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지혜에 대해 많은 설교를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서 지혜가 빠지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혜는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픈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앙이 삶의 현장과 분리되어 있다는 이원화, 단편화 현상입니다. 삶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 때문에 수많은 기술들을 배우고 지식들을 쌓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은 삶 전체에서 고백되어서는 신앙입니다. 삶의 큰 부분이 신앙과 무관하다면 여간 힘드는 일이 아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이유”

누가복음 14:28-32

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참된 영성은 결코 독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영성이란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분리되어선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도 그러합니다.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한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구원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길은 미리 어려움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길입니다. 바로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크게 율법서와 지혜서와 예언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율법서가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역사서가 따라 나옵니다. 뒷 부분에는 역사서와 함께 가는 예언서가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성문서 또는 지혜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혜서가 가운데 놓여있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혜서는 시편을 제외하고는 사실 가장 성경 같지 않은 책들입니다. 특히 잠언이나 아가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함께 묶어서 성경 중앙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 받은 백성들의 삶, 사이입니다. 이러한 위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이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위해서는 지혜서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서는 구원과 삶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구원이 온전한 모습을 갖도록 축복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리입니다.

잠언은 일상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도록 돕는 지혜의 책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심지어는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구원 받은 백성들이 삶의 현

장 속에서 구원을 온전케 하도록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원을 삶으로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것은 우리의 구원과 삶이 연결되는 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라는 고리를 통해서 구원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혜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주님은 구약에 나오는 지혜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특별히 주님이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지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은 많이 하셔도 지혜서를 언급하신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못지않게 지혜서

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이나 행동에 지혜서의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서의 중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잠언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

오늘 누가 복음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지혜를 포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을 확신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믿을수록 더욱 지혜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을 짓는 자들과 전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 받았습니 다. 그러나 이들은 땅대의 비용을 계산합니다. 전쟁의 비용을 계산합니다. 비용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제적으로 따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댓가를 미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길은

미리 어려움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길입니다. 바로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철저히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시편에서는 아예 지혜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높은 지위를 가져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은 지혜를 통한 것이 아닙니다. 믿을수록 더욱 지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명을 갖게 되고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당연히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원은 지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며 날마다 성숙해지며 온전해 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혜로우신 분이요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이유

성도가 지혜로워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부의 창조 사역 때문에, 성자의 구원 사역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영적 사역 때문입니다. 지혜는 우리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고,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고, 성령 하나님의 성화 사역에 참여토록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성자의 구원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삶의 모든 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케 하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영적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은 교회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신앙이 자라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사건과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룸으로써, 신앙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는 길을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1: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박원호 담임목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인 본 교회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번 호에는 공동체를 조출하게 이끌어가는 두 구역을 소개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우리 이웃구역입니다. 특별히 자랑하거나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구역들이 다 아름답게 영결어가고 있으니까요. 다만 비전에서 제시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보여주기위해 1교구(우동윤목사) 4교구(신화식목사)의 추천을 받아 이번호에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4교구 8,9구역모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부딪히며 아파하는 모습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구역 ”

시월의 마지막 낮에 같은 구역으로 모이다가 분가하여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구역식구가 오랜만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구역은 여성구역으로 금요일 낮에 각 가정을 돌며 함께 하는 구역으로 3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연령대로 어떤 분은 10년 지기로 만난 지 오래되어서 자녀를 출산해서 아기가 학교 가도록 세월이 지났다. 어떤 집사님은 몇 번 만나지 않은 새 가족이지만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처럼 함께 숯김없이 나누는 구역이다. 날마다 술로 사는 어떤 집사님 남편, 사춘기 자녀관계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섬기며 겪는 어려움 등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부딪히며 아파하는 모습을 서로 나누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구역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계회복을 원하신다는 좋은



1교구 13구역모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1-13구역 ”

지난 주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후5:17) 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구역원들은 서로의 가정을 위해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변함없이 새가정을 맞이했고 그 중 새신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두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했으며, 오랫동안 아기가 없어 5년간 기도하던 가정에 임신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한해의 결실을 생각해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구역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서정하 집사(1-13)

구역소그룹 집중 탐구 ④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



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아버지과 자녀처럼 한 가족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거듭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가족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46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가족은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서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식사를 거르면 거를수록 가족과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 집니다. 두 번째 원리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 관계가 깊어 집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다’ 고 합니다. 가족이 가족다워지려면 서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서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경험을 하기 힘듭니다. 세 번째 원리는 가족은 서로 돌보아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기 재산과 물건을 나누어 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 또는 자식 같은 성도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여 혼자서도 든든히 서기 전까지 후원해 주고 도와주며 보살피 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인데 교회 안에서 가족경험이 없습니다. 마치 가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진 가정의 모습, 깨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가족으로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구역소그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강찬 목사